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 선수, 3관왕 쾌거

진안군청 역도팀 유동주 선수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열린 제95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유동주 선수는 인상(164kg) 1위, 용상(193kg) 1위, 최종 합계에서 363kg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유 선수는 지난해 열린 제94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탁월한 실력을 선보였다. 유동주 선수는 진안군 역도 간판선수로 2015년 창단과 함께 입단했으며 타고난 기량과 꾸준한 훈련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돼 지난 2020도쿄올림픽에서 96kg급 8위를 하는 등 국내·외로 진안군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유동주 선수는 "그동안 역도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군수님과 진안군민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8일 도내 청년 친화 강소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 인스타그램(Instagram)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가운데 재학생 및 지역 청년 등 미취업 졸업생 283명이 참가해 호응을 얻었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국립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다양한 청년정책과 참여 방법에 대해 전주대학교 취업(Cheer up) 서포터즈가 직접 안내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국유림, 합동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최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리 일원의 풀베기 사업장에서 무주번듯불기계회합립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사항을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 휴식기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김영호 소장은 폭염 시 3대 안전수칙(그늘, 물, 휴식)을 공유하며 근무시간에 조정, 작업 시 해충(벌, 진드기) 방지를 위한 시연하고 많은 긴팔옷과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영림단장과 감독공무원은 보호장비 지급 여부와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석대, 약학·제약분야 연구 노후우 몽골에 전수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몽골 약학대학교(이하 MUPS)와 나라이호기술포럼(이하 NPC)에 각각 약학·제약 분야 연구 노후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27일 우석대를 방문한 MUPS·NPC 교수 및 관계자 10여 명은 연수에 앞서 남천현 총장을 예방하고, 연수과정과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우석대는 오는 7월 1일까지 약학과와 제약공학과에서 유전자 분석과 미생물 배양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노후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식품산업진흥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조합원이 행복한 농협 만들어 갈 것”

순창 동계농협 창립 60주년 기념식 · 조합원마음대회

순창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이 지난 24일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조합원마음대회를 열고 100년을 향한 포부를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기 순창군의회 의장, 오은미 도의원, 김원철 협동중앙회 이사(부안농협 조합장), 이창완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 부본부장,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지역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지역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동계농협이 걸어 온 60년을 축하하고 100년이 다짐을 응원했다. 특히,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자매결연 농협인 남서울농협 안용승 조합장과도 함께 했다. 동계농협은 행사에 앞서 고희호 초대조합장 공적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양준섭 조합장은 “모든 것이 어려웠던 때에 고희호 초대 조합장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의 우리 농협이 있게 되었다. 오늘 임직원과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공적비를 세우게 되어 기쁘고 영광이다. 우리 농협의 조합원과 선배 조합장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바탕으로 100년 동계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동계농협은 1964년 6월 1일 이등조합 합병으로 창립한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앞장서 왔다. 미국종합처리장(RPC), 비공농축육포장, 농



산물산지유통센터(APC), 영농자재배화점 등 유통지원 시설을 갖추고 경제사업과 조합원 영농지원 기반을 다져 배농사 외에도 참두름, 밤 매실 등 지역 농산물을 전량 판매하고 있어 농가소득 높이는 데 주력하여 2018년 농산물판매사업 업적평가 전국 1위, 2019년 RPC 경영평가 우수상, 2021년 상호금융대상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양준섭 조합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100년 동계농협”을 위해 바차를 가하여 경제사업 500억원을 달성해 조합원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형우 정읍부시장, 마약 없는 세상 캠페인 동참

김형우 정읍부시장이 27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 김 부시장은 27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부시장은 정읍신문 김태룡 대표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황혜숙 정읍시의회 부의장과 김운기 전북도청 건설교통국장을 지명했다. 김 부시장은 “마약은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시작하는 순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며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교대-비상교육,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는 27일 본부 2층 회의실에서 (주)비상교육과 교육문화 향상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초등예비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 지원과, 정보 교환 및 양 기관의 상호발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협력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교육 능력 향상에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박병준 총장은 “(주)비상교육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문화의 향상과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신규 임원 선출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효웅, 이하 전공노련)의 새로운 임원단이 꾸러졌다. 전공노련은 전국 6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연합단체다. 27일 전공노련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신규 임원으로 위원장에 류효웅(제세미원 노동조합), 사무처장에 윤여권(아산치신리관리공단 노동조합), 기획실장에 임윤환(동해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을 각각 선출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김창태, 김근일, 김정현(순서대로 창원레포츠과노동조합, 안동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 광주환경공단노동조합)를 상대로 68대 41로 꺾고 승리했다. 30대인 류효웅 위원장 당선자는 젊은 대표자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전공노련을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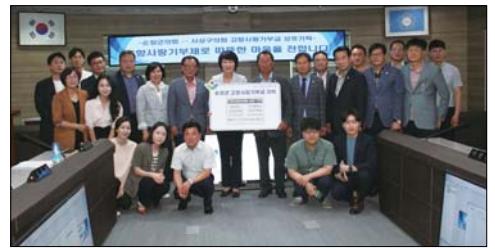
특히 전공노련은 그동안 가맹 노동조합 중 규모 큰 공사 또는 공단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노동조합 대표인 류효웅 위원장을 뽑았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임업후계자 전재삼 씨, 2023년 스타임업인상 수상

진안군은 27일 산림청과 한국임업신문이 공동 주최한 ‘스타임업인상’에 관내 임업 후계자 전재삼(진안군 미령면, 66세)씨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타임업인상’은 임업발전과 산림분야 소득증대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전국에서 11명이 선정돼 27일 토요일인호철 KW컨벤션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전재삼 씨는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신47-1번지 일대에 대규모 임산물(명이나물, 산양삼, 눈개승마, 도라지, 더덕, 팥두름, 여름두름 등)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유업기능교육원 교육생 및 임업 후계자들에게 현장실습과 체험의 장을 제공해 재배기술 보급에 힘써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재삼 씨는 “현재 임업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임산물을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과 농산물 판매센터 외에 인터넷 쇼



핑몰과 계약으로 임업 소득 증대와 함께 진안군의 우수한 임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준성 군수는 “군에서는 앞으로도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순창군의회 · 부산상상구의회, 고희사랑 상호 기부

순창군의회(의장 신정기)는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장 윤숙희)와 고희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자매결연 도시의 발전 및 증진을 위해 고희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이번 상호기탁은 순창군 신정기 의장과 사상구의회 윤숙희 의장이 고희사랑기부금을 통해 각각 도시의 발전을 지원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이뤄졌다. 순창군의회는 8명의 의원과 20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여해 310만원의 고희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 사상구의회도 300만원의 고희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호원대, 중국 중경전신직업학원과 간담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7일 총장실에서 중국 중경전신직업학원(총장 울육협)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경전신직업학원 총장 및 대학 관계자 5명이 26~27일까지 양일간 호원대를 방문했다. 중국 중경시에 위치한 중국전신직업학원은 자동차기계학과 등 총 6개학부 재학생 6,500명 규모의 전문대학으로, 호원대와 한국어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학점교류 교환학생을 선발해 파견하고 있다. 양 대학은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로 주춤했던 한국어 교육 과정 확대 및 교환학생 증원 등에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강희성 총장, 정의봉 부총장, 신상열 입학홍보처장, 전항만 교무학생처장, 유선영 교육혁신처장, 이정현 국제교류센터장 등과 중경전신직업학원 울육협 총장, 주명성 부총장, 왕병민 국제교류센터장, 로군 국제교류센터장, 리모 국제교류센터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고창·정읍 일대에서 농촌 일손 돕기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6~30일까지 5일간 고창·정읍 지역 10개 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해 8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모두 참여해 총 405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농촌 일손 돕기 활동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폐비닐 수거 등 마을 환경 미화 농촌 위험 요소 파악과 노후 시설 수리 및 보수 활동 등 농촌 ESG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28일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27일에는 이학수 정읍시장 직접 농촌 일손을 돕기 현장을 찾아 전주대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대학은 배움을 통해 끊임없이 나누는 곳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맞춤형 교육

남원시는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수행을 위한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맞춤형 교육 및 슈퍼비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3일부터 6월 20까지 8주 동안 23개 읍면동 맞춤형 복지·간호 업무 담당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월 2회 맞춤형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에서 개인 사례를 발표하고 희망복지 지원단과 동료들이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읍면동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로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